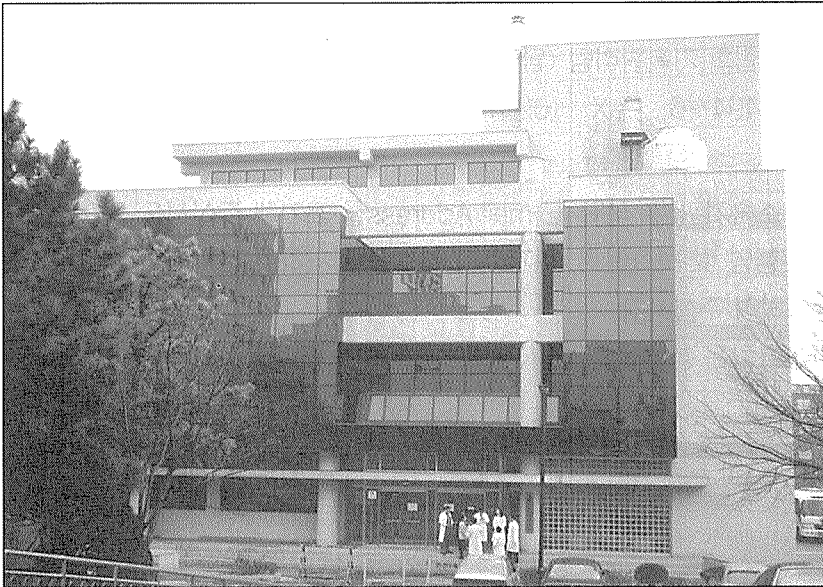


방사선보건연구센터 개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방사선비상사고시 적절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국내 최초로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완공되었습니다. 동 연구소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부지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건평 1,500평 규모로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방사선 보건에 관한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는 물론 방사선비상시 응급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완비하였습니다. 연구인력으로는 우선 내과학, 핵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전문의 등을 비롯한 보건물리학, 유전공학, 예방의학, 분자생물학 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여 방사선 보건분야의 질적인 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23년째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물론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의 수가 국가경제 발전과 비례하여 92년도 800여개 기관에서 2,000년도에는 약 2,000여 기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증가도 괄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방사선보건연구센터는 방사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받게되는 방사선의 양을 정확히 평가하여 주기적인 건강검진 결과와 상호 비교 평가함으로써 방사선 장해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수명기간동안의 건강검진 이력 및 방사선피폭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상



관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비상 사고시 방사선 피폭 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방사선 방재 훈련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필두로 시작하여 현재 국내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원전 수만 하더라도 총 16기로 세계 7위권의 원전보유국입니다. 원전의 규모와 각종 운영실적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원전 운영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크고 작은 방사선사고는 핵무기 반대에서 시작된 반핵운동과 결부되어 사회문제화 되었고, 원자력과 방사선은 상대적 위험의 크기와 거의 무관하게 현대사회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피해를 정확하게 검진하고 치료연구할 수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방사선보건에 관한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동 연구센터는 원전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방사선 장해방어 및 인체 영향연구와 더불어 방사선 비상시 응급 및 후송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방사선비상 및 보건안전에 대한 교육훈련기구로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우수한 국제기구와 평실상부 대등한 위치로 접근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사선피해 주장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방사선 보건에 대한 저문에 응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방사선 비상의료에 이용될 방사선 피폭환자의 제염실, 치료실, 수술실, 교육훈련 시설 등이 있고, 방사선 보건연구를 위한 중앙실험실, 세포유전학 연구실, 보건물리 및 역학연구실, 기술정보분석실, 자료실, 동물사육 및 실험실 등이 있으며, 장해검진을 위한 임상검사실 및 핵의학 실험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방사선보건연구센터는 한전 부속병원내 방사선 장해연구실에서 출발하여 “한국실정에 적합한 방사선장해 진단법 개발, 세포유전학적 방사선진단법 개발, 자동염색체 분석기 자체개발, 방사선 사고에 대비한 한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의 연구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장해 검진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10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탄생한 방사선보건연구센터는 장해검진, 비상의료, 방사선보건연구 등 3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 인력의 확충과 부단한 연구로 평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양적 성장에 질적균형을 부여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